門外不出 백제관음상, 23년만의 외출

내년 3월부터 두 달간 도쿄국립박물관서 공개



23년 만에 바깥나들이를 나서는 백제관음상.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나라현 이카루가(斑鳩)에 소재한 호류지(法隆寺). 고대 한일 불교사에서 중요한 사찰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이다. 이 호류지가 자랑하는 성보 '백제관음상'이 23년 만에 외부에서 전시된다고 9월 24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의 주요 언론사가 대서특필했다.

도쿄국립박물관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3월부터 약 두 달간 특별전 '호류지 금당벽화와 백제관음'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박물관 측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별히 고대 불교조각의 걸작인 백제관음상을 도쿄로 이운해 전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1949년 화재로 소실된 금당벽화에 대해서도 "모사도를 특별히 한자리에 모아 소실전후의 모습을 소개할 것"이라고 전시내용을 설명했다.

전시회의 공동 주최자인 호류지는 "훼손된 금당벽화와 부재들을 모아 사찰의 수장고 안에 재현해 두고 있다. 2015년부터 금당벽화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해 수장고의 공개관람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진행가운데 금당벽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고자 훼손전의 금당벽화를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시의의를 전했다.

특별전의 중심이 되는 백제관음상은 녹나무로 조성된 높이 2.1m가량의 채색 보살상으로, 고대 백제에서 조성해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제관음상이 외부에서 전시된 것은 1997년 파

세계문화유산 호류지 소장한
성보 백제관음상 외부 전시
내년 3~5월, 부대행사 마련
금당벽화 모사본도 함께 해

리 루브르 박물관 특별전과 같은 해 도쿄박물관의 특별전뿐이다.

호류지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온 후루타니 쇼카쿠 스님은 "최근 세계 각지와 사회 곳곳에서 불행한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부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세상이 평화로워지길 바란다"며 백제관음상의 외부 전시를 결정한 계기를 말했다. 백제관음상과 동시대에 조성된 비사문천상과 길상천상도 함께 전시된다.

한편 전시의 또 다른 축인 금당벽화는 4면의 여래상과 8면의 보살상으로 이루어진 12면의 벽화로 고대 불교미술의 중요한 회화로 손꼽히고 있다. 도쿄박물관 측은 "호류지의 역사성과 미술적인 가치로 금당벽화에 대한 모사가 중세부터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원본은 화재를 입은 이후 벽면에서 분리, 재건된 금당에는 모사도가 원본을 대신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1884년과 1922년 당시 최고의 화가들이 원본크기로 모사한 모사도중 9면의 그림이 전시된다. 공개되는 그림 가운데엔 금당벽화에서 가장 걸작으로 꼽히는 제10호벽의 석가설법도와 제6호벽의 아미타정토도, 12호벽의 십일면관세음보살도가 포함됐다. 또 다행히 화마를 면한 20면의 비천상 벽화도 일부 출품될 예정이다.

특히 6호벽의 아미타정토도에 대해 도쿄박물관 측은 "호류지 화재당시 살수된 수압으로 벽화의 본존인 아미타불의 상호가 심하게 훼손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이번 모사도 전시를 통해 "지금은 볼 수 없는 모습을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는 내년 3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계속되며, 4월 중순 전시품이 일부 교체될 예정이다. 전시기간 중 관련된 부대행사와 학술대회가 함께 마련된다.



스리랑카 불교축제에서 학대 논란의 대상이 된 코끼리 '티키리'가 결국 숨졌다. 사진출처=코끼리구호재단 페이스북

'학대 논란' 스리랑카 코끼리, 결국 숨져

스리링카 불교축제서 제외됐지만 상태 악화

앙상한 뼈를 드러낸 채 불교축제에 동원돼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스리랑카의 코끼리 '티키리'가 결국 숨졌다. 지난달 코끼리구호재단(Save Elephant Foundation)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며 당국이 축제에서 티키리를 배제했지만, 결국 한 달 만에 숨진 것이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레크 차일러트 코끼리구호재단 창립자는 지난 9월 24일 SNS에 티키리의 사진을 공개하며 "티키리의 고통은 이제 끝났고, 그의 영혼은 자유로워졌다"고 적었다.

티키리는 약 한 달 전 코끼리구호재단이 페이스북에 올린 몇 장의 사진으로 동물학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사진 속 티키리는 '페라헤라' 축제에 동원되기 위해 화려한 장식의 의상을 걸쳤지만, 다른 사진에서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모습이었다. 페라헤라 축제는 스리랑카 칸디에서 매년 열리는 대규모 불교축제로, 장식된 코끼리 60마리가 볼거리로 동원된다.

이에 전 세계에서 비판이 일자, 축제를 주관한 사찰 측은 "티키리가 소화 관련 질병 때문에 체중이 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스리랑카 관광부는 티키리를 축제에서 제외 조치했다. 하지만 티키리는 상태가 점차 악화돼 축제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숨을 거뒀다.

코끼리구호재단 측은 "축제(에 동원된) 후 티키리는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고립된 채 지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정현 객원기자

게임유저들 몰려든 日 린센지

국민게임 드래곤퀘스트 이벤트지역으로 설정돼 사찰 동의 없어 논란도



게임 속 랜드마크로 설정된 린센지 산문. 사진출처=조에쓰시 관광정보 홈페이지

유명 스마트폰 게임에서 일본의 모 사찰이 이벤트 지역으로 무단 설정되면서 도량 분위기가 어지러워져 소동이 일고 있다. 사찰 측은 "게임사로부터 통보 받은 것이 없다"고 밝히며 단순 게임을 목적으로 경내 무단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9월 25일 일본의 'J-캐스트 뉴스' '라이브 도어' 등이 보도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사찰은 일본 니이하마현에 소재한 린센지(林泉寺). 약 500여 년 전에 창건된 선사(禪寺)로 지역에선 역대 영주들의 위패를 봉안해 격이 높은 고찰로 평가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월 12일 출시된 스마트폰 게임 '드래곤 퀘스트 워크(DQW)'였다.

DQW는 일본의 국민게임이라고 불리는 '드래곤 퀘스트'의 스마트폰 버전이다. 게임 개발사인 스퀘어 에닉스사(社)는 게임의 재미를 위해 실제현실에서 랜드마크로 지정된 지역에 직접 방문하면 지역 한정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그런데 니이하마현에 소재한 4곳의 랜드마크 가운데 린센지의 산문(山門)이 랜드마크로 지정된 것이다.

문제는 게임상 랜드마크인 린센지 산문이 입장료를 지불해야하는 경내에 있다는 점이었다. 린센지는 "일부 관광객들 가운데 '게임유저는 무료입장'이라며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아이템을 받고서는 입장료를 환불해 달라는 소동이 있었다"며 결국 안내문을 사찰의 입구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에는 "게임에서 산문이 랜드마크로 지정된 것은 사찰과 관계가 없으며, 개발사 측의 연락을 받을 것도 없다"고 명시하며 "단순 아이템 입수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경내에 들어오거나 입장료의 환불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해당 사찰의 입장료는 도량을 정비하는데 쓰고 있기에 양해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게임을 위해 이곳에 방문하더라도 경내에선 잠시 전자기기를 손에서 놓고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진정한 모험과 여행을 즐기는 것은 어떠한가"라는 권유도 함께 실었다. 한편 "국민게임인 드래곤 퀘스트의 랜드마크로 설정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안내문의 내용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게임 유저들 간엔 "규칙과 예의를 지키는 유저가 되자", "사찰에서 안내문을 붙일 정도면, 대체 얼마나 무례했던 것인가"라는 등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안내문 내용에 대해 "불쾌한 상황임에도 게임유저들을 내치지 않고, 자비롭게 답하는 부처님의 마음"이라며 사찰 측의 현명한 대응을 칭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박영빈 객원기자

하와이 사찰서 절도… 용의자 1명 체포

전자장비 · 음식까지 훔쳐, 감시카메라에 적발



하와이 소재 일본사찰인 하마쿠아에서 절도 후 도주한 용의자들. 이 가운데 1명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출처=하와이뉴스나우 방송화면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위치한 일본불교 사찰 하마쿠아(Hamakua)가 2명의 남성에게 절도를 당했다. 해당 남성들은 사찰의 CCTV, 냉각기 등 전자장비뿐만 아니라 음식도 훔쳤다. 이를 백업(back-up) 감시 카메라가 포착해 1명은 경찰에 붙잡힌 상태다.

지역매체 하와이뉴스나우(Hawaii News Now)는 9월 27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두 남성은 주지 스님과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누고, 스님은 사찰을 소개했다. 그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사찰의 재산관리 담당자 샌디 타카하시는 "그들은 우리 사찰의 역사에 관심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당시 경내에 있던 주지 스님은 그런 그들을 환영하며 '밖이 더우니 차를 드시고 가라'며 차담까지 나눴다"고 분개했다.

타카하시는 "주방과 식당의 CCTV를 전부 해체해 녹화 장치, 카메라, 배선 장치까지 훔쳤다. 그들은 냉장고의 음식과 음료도 훔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CCTV까지 훔쳐 달아난 그들의 치밀함은 백업 감시 카메라에 잡혔다. 해당 영상에는 그들의 용모와 인상착의가 적나라하게 담겼다. 사찰은 이를 온라인상에 공개, 몇 시간 만에 지역 시민이 용의자를 발견해 신고했다.

타카하시는 "우리 절은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성스러운 곳에서 절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 스님들은 물론 신도들도 많이 안타까워한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